미술관을 쉼터 삼아 짧은 설 연휴 즐겨볼까

도립미술관 '프렌치모던' 계속
제주현대미술관 '산…' 상설전
김창열미술관 '물방울' 영상
기당미술관 10년치 소장품전
이중섭미술관 5인 여성작가전
소암기념관 초기작 등 소장품

제주현대미술관 상설전 김택화의 '한라산 설경'.

이중섭미술관 기획전 김현수의 '나의 숲'.

짧은 설 연휴에 비날씨까지 예보되면서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가까운 미술관은 어떨까. 실내에서 찬찬히 여유를 즐기며 제주색을 품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제주지역 공립미술관들이 운영 조례에 근거해 설 당일과 월요일에 문을 닫는 터라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제한적이지만 짬을 내 미술관으로 떠나보자. 6개 공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전시를 소개한다.

제주시 신비의도로변에 있는 제주도립미술관은 지난해 막 오른 개관 10주년 기념 '프렌치 모던'전을 이어가고 있다. 풍경화, 정물화, 초상화와 인물조각, 누드화 4개 섹션으로 구성해 모네, 르누아르, 세잔, 드가, 마티스, 말레, 샤갈 등 미술 교과서에서 봤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미술관 2층에는 디지털을 통해 이들 작가의 작품을 공감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조성됐다. 도립미술관이 주목한 제주 청년작가 강태환 개인전도 '영 앤 이머징 아티스트' 기획을 통해 같은 기간 시민갤러리에 배치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엔 두 개의 공립미술관이 있다. 그 중 한 곳인 제주현대미술관은 최근 상설전을 교체했다. 분관에서 8월 말까지 계속되는 '산, 산, 산'전이다.

분관 1층은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일찍이 터를 잡은 박광진 작가 기증 작품으로 꾸몄다. 박 작가가 1970년대부터 제주, 전라도, 강원도, 함경도 등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하며 화폭에 담아낸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나왔다. 2층엔 제주현대미술관과 기당미술관 소장품 중에서 김택화, 이명복, 오승익, 채기선 등 산을 소재로 그린 8점을 전시했다. 미술관은 "산의 힘찬 기운을 받으며 한 해를 생동감있게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다.

미술관 본관에는 한국현대추상조각의 계보를 잇는 김방희(제주대 교수) 조각전이 개최되고 있다. 상설전시실엔 1970년대 초반 '하모니즘'으로 불리는 조형주의 이론을 세우고 작품을 그려온 김흥수 작가의 기증품이 내걸렸다.

인근 김창열미술관에서는 '나를 찾아서, 치유의 물방울'이란 제목 아래 김창열 작가의 작품을 토대로 한 물방울 영상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제주현대미술관 입구 맞은 편에 들어선 제주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는 수장고 빗장을 열어 제주 이승수 작가 등 7명의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서귀포 도심에 흩어진 3개 미술관도 빼놓을 수 없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시립미술관'으로 기록되는 기당미술관은 670점이 넘는 소장품 중에서 2010년 이후 10년간 수집한 30여 점을 골라 소장품전을 마련했다. 강요배, 전광영, 변시지에서 강주현, 김도훈 등 젊은 작가까지 소장품 목록이 닿는다. 이중섭미술관으로 가면 김현수, 박순민, 송묘숙, 임영실, 홍지안 등 제주 여성 작가 5명이 참여하는 '색(色) 다른 섬 풍경' 전시를 볼 수 있다. 서귀포 서예가 소암 현중화 선생을 기리며 문을 연 소암기념관은 소암이 1958년에 쓴 주자(朱子)의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 등 초기 작품 등으로 소장품전을 진행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詩(시)로 읽는 4·3 (43)

낭그늘, 둥글게 말아-자리왓에서

김병심

오래전 먼저 떠난 어미처럼
4·3난리통, 땅바닥 떨어진 마을
포대기에 들쳐 업고
아직 안 끝나신가 마을 밖 기울
거리던 팽나무

강씨, 문씨 집성촌이
나뭇가지 잘라 지팡이 선물한 오
랜 친구 왕 할아버지 서당까지도
양배추 밭으로 청보리 밭으로
갈아엎어졌어

어디선가 몹쓸 바람이 분 거여
난리가 다시 처진 모양이여

인기척 끊긴 마을
산담 너머 더욱 숨죽이는 목소리
누가 들을까 나지막이 엎드린
봉분들

자식새끼마저 깃들지 않는 올레
가 무슨 소용이냐
자리왓 마지막 생존자
어머니 따라 서둘러 떠난 길
붉디붉은 땡볕 황토길
배웅 나온 팽나무
두 손 둥글게 말아 아버지 머리
에 월계관 씌워 주었지

자리왓은 애월읍 어도2구의 자연마을이다. 남평문씨 일가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기 시작한 이래 30여 가호(家戶)에 150여 주민들이 살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었다. 마을 가운데 신명서당이 있어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뛰어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 어도2구는 열루왓, 자리왓, 고도리왓, 몰팟, 상수모를, 화전동의 7개 자연마을로 형성되었다. 마을 촌장들이 자리왓 팽나무 아래 모여서 대소사(大小事)를 의논하며 살던 마을이었다.

1948년 11월 23일~25일 3일간 소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초토화 작전으로 마을은 폐허로 변했다. 주민들은 마을이 재건된 후에도 어도1구에 대다수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자리왓은 현재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있다. 당시 지리왓 중심지였던 왕돌 거리에는 큰 팽나무가 남아있고, 곳곳에 좁고 구불구불한 올레터와 집터 흔적임을 말해주는 대밭들이 남았다. 주민들은 봉성리 입구 신명동에 터를 잡아 살기 시작한 후 자리왓 등으로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 애월농협 봉성지점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들어서면 갈림길이 나오고, 남서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팽나무가 있는 왕동거리가 나타난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구린새끼 골목에 지치지 않는 사연

김양희 시인 두번째 시집
서귀포 원도심 얽힌 기억
제주방언 시어 적극 활용

'시인의 말'에서 그는 옛집이 있는 곳으로 회귀한다고 했다. 한자어에 돌아간단 뜻을 품은 서귀포(西歸浦)가 회귀처다. 첫 시집 '서귀포 남주서점'으로 고향에 가닿았던 김양희 시인이 또 한번 '자애로운 두모악 능선 아래 중산간 오름들 손짓하고 산물은 흘러넘쳐 천지연 폭포수 물보라 이는' 서귀포의 기억을 깨웠다. 한국문연에서 두 번째 시집 '나의 구린새끼 골목'을 냈다.

표제로 끌어온 구린새끼는 지금의 이중섭거리 주변으로 이어졌던 샛길 골목을 일컫는다. 제주를 떠나 울산에서 30년을 살고 있는 시인에게 서귀포가 '다시 시작'하는 동력이 되는 공간이라면 구린새끼는 거기에 구체성을 부여한다. 어느 시절 원도심 구석구석 닿는 시인의 발길은 서귀포가 얼마나 다채로운 도시인지 일러준다. 시인이 아니면 잊힐 뻔한 장소가 곳곳이다.

구불구불 골목은 지치지도 않는 사연을 쏟아낸다. '싱싱한 바다가 집 앞에서 팔리고 초하루 새벽에는 제물과 비원을 구덕에 담은 어머니들이 관청 심방 찾아 자구리 해안가로' 내려갔고 '가끔 한낮 어딘가에서 심방의 본풀이와 굿 장구 방울소리 무섭게 들리면, 집 구렁이 나타날까 길마저도 발소리 숨기고 도망'('회귀-나의 구린새끼 골목 1')쳤다. 소금에 절여지고 삭혀져 깊은 맛내는 '멸치'(멸치젓)처럼, 서귀포 골목과 바다는 상처가 언젠가 삶의 내공이 된다는 걸 몸소 보여준다.

시인은 시집 가운데 배치한 '나의 구린새끼 골목' 연작 등에 제주방언을 시어로 썼다. 제주방언은 이 섬의 정서를 온전히 전달하면서 격절성을 드러내는 장치다. 나라의 수도와 가장 멀리 떨어졌고 말씨와 기후가 유별났던 그 '다름'은 때때로 고통을 낳았다. 수 만의 제주민이 희생된 제주4·3 등 엄청난 비극을 딛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그 힘은 지금껏 살아남은 제주방언의 생명력과 연결된다. 다만, 시적 표현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아 등 일부 방언 표기가 잘못된 점은 아쉽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청년문화 특성화 지원 사업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0년 청년문화매개특성화지원사업을 이달 31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청년유망예술가육성지원·청년예술처음발표지원·청년예술창작공간임대료지원·청년문화기획프로젝트지원 등 4개 유형에 걸친 이번 공모는 종전과 달리 문학, 시각, 공연 등 지원대상을 전 장르로 확대했다. 청년문화기획프로젝트지원은 개인만이 아니라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만 19세~39세 청년예술가나 기획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800-9163.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인상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동을 지원하는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시행한다.

발급 대상은 만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mnuri.kr), 전화(1544-3412)로 신청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이 인상된 9만원이다. 온라인 발급과 ARS재충전은 2월 1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한 발급과 재충전은 2월 3일부터 실시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제주도내 740여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64)800-9164.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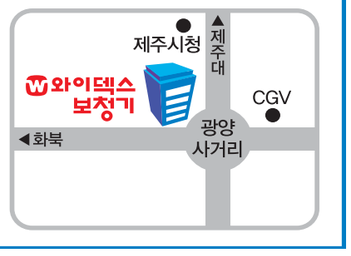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